청소년 근로자들이 운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현장

中 청소년 처우 실태

임금 체불·야간근무 다반사 퇴직금·휴가는 꿈도 못꿔요

대부분 계약서 작성 안해

최저 임금조차 떼이기도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청소년(15~24세)들을 고용한 광주지역 대규모 사업장 2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사업장 마다 무려 6~8가지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다반사였으며, 최저임금 지급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사업장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다 업주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청소년상담센터에서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30명에 대해 긴급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1세의 청소년들 중 최저임금을 받은 경우는 2명이었으며, 이들 중 15세인 여중생은 바텐더로 일했다. 이 여중생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으며, 2주 동안 일하고 그만뒀으나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오락실에서 일한 20세 여대생도 시급 3천300원을 받았으나 두 달이 다 돼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17세 여고생은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업주로부터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0명 중 가장 낮은 시급 2천원을 받은 18세 여고생 역시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며, PC방에서 일한 20세 여대생은 야간근무를 하면서도 시급 3천500원을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21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임금 체불, 유급 휴가 금지, 야간근무 등 근무여건 열악, 예고 없는 해고 등을 경험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이어야 고용할 수 있으며,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13~14세의 청소년은 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또 임금이나 근로기간, 휴가, 업무 내용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흥업소나 만화대여업, 성인오락실 등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 42시간(20인 이상은 1주 4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50% 추가 지급,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 유급 휴가, 해고 시 30일 전 예고(예고가 없었을 때 30일 분의 통상 임금 지급) 등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박병훈 광주시청소년센터 소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불법과 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불·탈법 사례가 공공연히 만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파리에 쏘이고, 파도에 목 꺾이고

전남 서남해 해수욕장 사고 빈발

지난해보다 2배 늘어

전남 서남해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파리에 쏘이고 파도에 휩쓸려 목이 꺾이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서남해 일대 해수욕장 개장 이후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구조된 인원은 324명으로, 지난해(176명)보다 2배가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튜브사고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미숙(71건) ▲보트(11건) ▲수상레저(3건) 등의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피서객이 몰리는 토요일(32%)과 물놀이객이 많은 정오~오후 4시(57%) 사이에 사고가 집중됐다.

실제 전날 오후 4시20분께 영광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황모(7)군이 물놀이를 하던중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가족들과 해수욕장을 찾은 황군은 순찰 중이던 해경의 응급치료를 받아 회복됐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신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박모(여·57)씨가 해파리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 11일 오후 3시50분엔 신안군 우전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여·47)씨가 파도에 휩쓸려 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튜브로 올라가는 도중 파도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떨어져 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이상 수온으로 해파리 떼가 서남해 어장을 급습해 쑥대밭으로 만든 데 이어 해수욕장까지 밀려와 떠다니는 것이 수시로 목격돼 피서객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자원봉사자 발대 12일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재단 회의실에서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 전시장 안내를 도울 통역도우미, 운영요원, 자원봉사자들이 발대식을 갖고 있다.〈관련기사 13·16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참 〈7880〉 김종두

구의원 협박·갈취 조폭 영장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광주 모 구의원에게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협박을 일삼은 광주 S폭력조직 두목 김모(46)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께 구의원 B(55)씨에게 '사업자금을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낮엔 대학생 밤엔 여탕서 절도

쌍나팔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여성목욕탕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쳐 용돈으로 쓴 '철부지' 20대 여대생이 경찰에 덜미.

○…광주광산경찰은 12일 광주 모 대학 A(여·22)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밤 8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스포츠센터 여탕에 들어가 옷장에서 현금 17만원이 든 B(여·28)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8회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낮에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밤이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형편이 곤란한 것도 아닌데 상습절도를 일삼았다"며 쓴웃음. /김형호기자 khh@

"연금 받게 해주겠다" 노인 쌈짓돈 가로채

16명에 5천만원 갈취 40대 구속

노인들의 쌈짓돈을 가로채온 40대가 구속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2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독거노인 등을 속인 뒤 통장에 들어있던 수천만원을 가로챈 정모(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정오께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 인근에서 주모(여·67)씨에게 "아들 친구인데 구청에 근무하고 있다. 통장 잔액을 비워야 연금을 탈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다"며 1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노인 16명을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공갈 등 전과 5범인 정씨는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구청이나 금융기관에 근무한다고 속여 손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조폭 영장

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2일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성매수 남성에게 돈을 뜯은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나모(21)씨와 정모(15)양 등 7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4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한 모텔 객실에서 정양과 성매매를 한 A(36)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 6개월간 10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텔에 투숙한 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객실로 쳐들어가 "내가 조폭인데, 미성년자인 내 애인과 성매매를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씨가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김모(18)군과 출소 뒤 만나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김군의 후배인 정양 등 가출청소년 5명을 데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사 따 주겠다" 속여 거액 가로챈 50대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12일 "교육청 발주 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장모(5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 7월 나모(50)씨에게 "교육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고등학교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17차례에 걸쳐 7천6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에서 "우리는 동업자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형호기자 khh@